

전남쌀 푸대접

품질 더 우수한데 경기 쌀 보다 가격 30% 싸
농협 매입 가격도 40kg 기준 1만4000원 낮아

전남 쌀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전남 쌀이 경기 여주 쌀에 비해 품질이 더 우수한데도, 정작 시중에선 여주 쌀보다 1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 쌀 저평가 현상이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남 쌀에 대한 공정하고 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이 9일 농협중앙회와 ㈜롯데상사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역별 쌀 가격 및 품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무안 ‘고향의 향기미’ 10kg 짜리 한 포대 가격은 2만5000원으로 경기도 여주 ‘대왕님표 쌀’ 가격 3만4500원 보다 9500원 낮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값을 받지 못한 전남 쌀이 여주 쌀 보다 품질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롯데상사가 지난달 17일 무안 쌀과 여주 쌀에 대한 외형(싸라기·백도 등)과 성분(단백질·수분함량 등) 및 식미분석(식미값)을 한 결과, 무안 쌀은 총합점수 92.0점을 받았고 여주 쌀은 86.0점을 얻었다.

이는 무안 쌀이 품질과 맛 등 면에서 여주 쌀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결과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품질 브랜드 쌀’ 12

개를 선정했는데, 이중 5개가 전남의 쌀이었다.

농식품부 측은 “소비자들이 ‘여주 쌀은 명품 쌀’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다량 구매하는 바람에 여주 쌀의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자들의 편견과 소비성향이 지역의 쌀 가격을 정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농협이 지난해 전국 8개 광역도에서 쌀을 매입한 자료를 보면 전남 쌀(40kg 기준) 매입가격은 5만1436원으로 경기 쌀 6만5000원 보다 1만3564원 낮았다. 농협은 전국 광역도에서 생산된 쌀을 농민들로부터 구매해 뒤 마트 등지에서 해당 쌀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전남 쌀이 경기 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된 점을 감안하면, 농식품부의 주장과는 달리 애초 농협의 매입가격이 시중 가격(마트 판매가)을 결정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남 쌀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여차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농식품부가 시중에 판매되는 쌀값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명품 쌀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농식품부가 품질 등에 따라 지역의 쌀 가격을 결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쌀이 우수한 품질에도 소비자의 편견 등으로 인해 타지역 쌀보다 낮은 가격을 받고 있다. 전남 쌀이 고품질에 걸맞는 공정한 가격을 받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10일 오후 해 질 녘 완도 청산도 다랭이 논에서 노부부가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작년 광주·전남 34만명 수도권 원정 진료

전남환자 10명중 1명 역외유출

작년 한 해 동안 수도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환자가 34만명이 넘는 등 수도권 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살지만 수도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료급여, 비급여 제외)는 2005년 174만명에서 작년 266만명으로 52.9% 증가했다. 그 사이 진료비는 1조 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2.6배로 늘어 같은 기간 2.2배 증가한 전체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았다.

작년 수도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는 총남 지역이 4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33만명, 충북과 경북 각각 26만명, 전남 23만명, 전북 21만5000명, 경남 21만3000명 순이다. 광주는 11만명이었다. 전체환자 수 대비 수도권 병원 진료 비율은 강원도(20.0%) 충남(19.4%), 충북(16.3%), 세종시(14.9%) 순으로 높았다. 전남은 10.2%로 10%를 넘어섰으며, 광주는 5.6%를 기록했다.

문 의원은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며 “지방 환자의 의료 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알립니다

韓中, 공동 번영의 길을 묻다

수교 23주년 세미나…21일 영암 영산재



지난 8월 24일 수교 23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은 이제 확고한 미래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특히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

전남은 ‘차이나 프렌들리’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사는 한중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국에 관심 있는 지역민, 학자, 학생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21일(월)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영암 한옥호텔 영산재
- 기조발제 : ‘중한FTA, 일대일로(一帶一路),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왕시엔민(王憲民) 주 광주 중국 총영사
- 주제발표 1 : ‘한중 FTA, 농업 협력 방안’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광주 전남권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주최 : 광주일보사·호남대 한국형 복합리조트 인재양성사업단
- 후원 : 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연구원·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

光州日報社

문재인 ‘재신임 카드’ 거센 후폭풍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제안이 오히려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재신임 제안에 대해 비주류 진영 인사들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계파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분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비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의 재신임 제안에 대해 사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반응과 함께 ‘조기 전당대회 개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무소속 선정배 의원까지 참여하는 ‘통합 조기 전당대회론’을

주장한데 이어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대표의 미래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당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때”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주류 진영에서는 비주류 진영의 비판과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 “젓밥에만 관심 있는,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폄하하며 사실상의 전투 태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문 대표의 혁신을 명분으로 한

재신임 제안이 당내 권력투쟁 양상으로 변하면서 당내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은 1차 재신임 여부가 걸린 16일 중앙위로 집중되고 있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혁신위 활동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중앙위의 인적 구성이 주류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혁신안의 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도 당내 단합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

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수시모집 | 062)605-1114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다줘
피부에 빛을 머금어 빛이 되게주고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